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1호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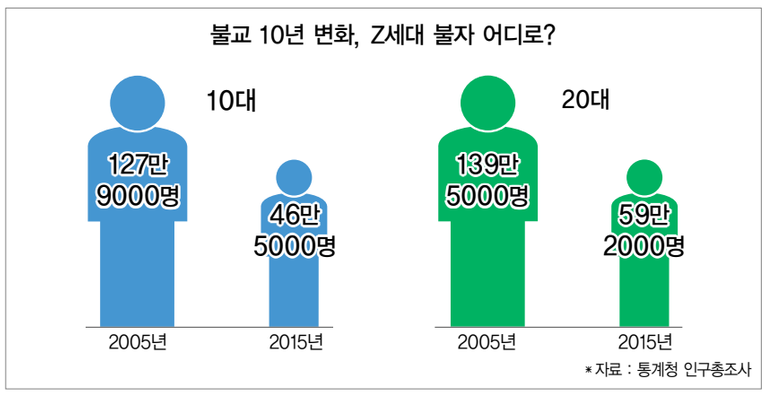
미래불교 성장동력 'Z세대'를 주목하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새로운 세상의 원동력' '신소비권력' 등 최근 젊은 세대를 뜻하는 Z세대에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말이다.

현재 주목받는 Z세대는 X, Y세대에 이은 세대로 1995년 이후 태어난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칭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여 기존매체인 TV, 신문보다 모바일 SNS에 익숙하다. Z세대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들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통계청은 '2015인구총조사 종교인구 조사'를 통해 불교신자 300만 명 감소라는 충격을 불교계에 안겼다. 이후 본지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추가분석한 결과 불교 내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 이른바 Z세대가 급감했음이 드러났다.

Z세대 중 불자는 어느 정도 될까. 먼저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연령대 비교를 보면 각 종교별 20대 미만 신자는 불교 123만 6000명, 개신교 214만 2000명, 가톨릭 63만 6000명이었다.

Z세대로 분류 가능한 10대 불교신자는 46만 5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81만 4000명이 감소했다. 역시 20대 불교신자도 59만 2000명으로 80만명이 넘게 감소했다.

최근 발간된 〈서울사회학〉의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 · 종교 · 세대의 관계성 탐색' 연구자료에서도 서울시 20~30대 청년세대 중 불교 인구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20대 미만의 불자의 수가 확연히 낮았다는 점이다. 20대 미만 불자는 전체 불자 761만명의 16%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 중 20대 미만이 23%에 달하는데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15년 조사가 표본조사여도 1000만명 가량을 표본으로 잡았기에 수치가 유의미하다. 20대 미만, 즉 디지털 미디어에 민감한 신세대 불자들이 적은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불교계의 변화가 더딘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승가대학에서도 젊은세대 포교를 위해 인터넷 포교 등 과목을 신설, 교육하고 있지만, 승단 고령화와 맞물려 한계가 있다. 불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포교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세대에게 불교는 없다

10대 · 20대 초반 세대 통칭
디지털 · 쌍방향 소통 친숙
10년 사이 160만명 감소

콘텐츠 · 인프라 구축 과제

유튜브 속 불교, 기독교의 34%
더딘 모바일 전환 낮은 활용도
"Z혁신, 불교 Upgade 시킬 것"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Z세대의 중요성에도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 95%가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튜브(조사매체 '디파이미디어', 1500명 조사, 인스타그램 69%, 페이스북 67% 이용) 속 종교별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유튜브에서 '불교' 주제어로 검색시 연관콘텐츠는 16만 8000개로 '기독교'의 49만 5000개의 34% 수준이었으며 '부처님' 주제어 검색시 연관콘텐츠도 8만 9400개로 '예수님'의 60만 5000개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요즘 10대들은 콘텐츠 생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를 소비한다. 특히 동영상 시청, 만화, 게임플레이,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즐긴다"며 "10대 후반에서 20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콘텐츠를 찾아도 콘텐츠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대와 20대 불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교를 접하면 결국 오프라인인 사찰이나 신행단체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전문가들은 현재 불교계 온라인 인프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불교계 대표IT기업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Z세대는 전세대에서 가장 낮은 TV이용률, 가장 높은 모바일 기기 이용률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사찰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 기반이 아닌 PC웹 기반에다가 모바일 웹도 사찰음식, 불교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을 통해 상담을 하는 등 요구에 맞춘 웹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백도수 능인불교대학 교수는 기존 설법과 포교 방식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의 경우 달라이라마, 탁낫한 스님들의 법문, 인터뷰,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 5분, 20분 분량으로 있다. 현재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도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대만 불광산사 성운스님의 설법도 예전에는 CD를 사서 들어야 했다면 이젠 유튜브를 통해 자동번역된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세상이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불교 변화는 법문, 불교정보가 전세계에 오픈된 시대에 한국불교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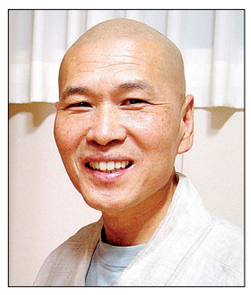


"지관 대종사 가르침 이어 가겠습니다" 지관대종사 문도회(대표 세민)와 탑 · 비 건립위원회(위원장 설정)는 6월 5일 해인사 홍제암서 가산당 지관대종사 사리탑 · 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리탑은 팔각원각형 부조형으로 지관 스님의 유골과 사리3과가 담겼다. 부도탑 상부는 쌍봉사 철감선사부도탑, 중앙은 진전사 도의국사부도탑, 하부는 고달사지 부도탑 양식을 계승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행적비는 고은 시인이 원고를, 서예가 송천 정하건 선생이 글씨를 썼다. **합천 해인사= 하성미 기자**

"국민 각성이 온전한 민주화 이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대 이사장 지선 스님

6월 8일 기자 간담회 가져
前 정권 사업회 인사 비판
"종교, 제 역할 못하고 있다"



"각성운동은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역사적 · 사회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만 봐도 범죄자들이 앉아서 심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각성해야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뤄집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사진〉은 6월 8일 기자간담회서 개인이익에 얽매여 민주화 발전을 저해하는 엘리트 인사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지선 스님은 먼저 하안거 기간, 사회 중책을 맡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감회가 새롭다고 밝힌 지선 스님은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당시 기념사업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사진부터 기념사업회와 동떨어진 인물이 선임됐고, 사업회 또한 잘못 운영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민주화가 한 단체나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폭넓게 의견을 수용해 민주화가 발전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선 스님은 촛불집회로 시작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처음 정국이 시끄러워졌을 때 외국으로부터 정치까지 선진화되진 않았다는 비아냥이 있었다. 몇 개월 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민주주의 희망이 보인다는 칭찬을 듣게 됐다"면서 "수많은 전쟁과 근대의 여러 사건, 비민주적인 일들을 많이 거치면서 성숙된 것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끌어냈다.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개인출세나 명예욕을 떠나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 스님은 또 민주화와 통일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역설했다. 스님은 "통일을 담보하지 않는 민주화, 민주화가 담보되지 않는 통일은 허구다. 한국의 모든 현실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분단에서 시작된다"며 "결국 역사도, 철학도, 예술도 반쪽짜리가 됐다. '분단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계속 헌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이어 온전한 민주화를 위해 종교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대중에 실망을 주는 현실을 한탄했다. 스님은 "종교와 언론이 깨어있지 못하니 국민들은 생존경쟁에 시달려 각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치나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해야 하는데 이익집단화 돼 제 역할을 못했다"고 반성한 뒤 "불교는 중생을 깨우쳐 부처가 되도록 한다. 시민으로서 상식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선 스님의 이사장 임기는 2020년 6월 4일까지 3년간이다. 스님은 1987년 6.10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2007~2010)을 역임하는 등 6월항쟁의 상징적 인물이다. 스님은 1987년 6.10국민대회서 내란음모죄로, 1989년 6월항쟁 도화선인 이철규 열사의 죽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렀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내며 불교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